



반항심 넘치는
아들이 유산을
요구하고는 집을
나온다.

그는 쾌락을 좇아
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
탕진하고 만다.

기근이 들자, 그는
돼지 키우는 일을
한다.

탕자

어느 날 그는 집으로
돌아가 도움을
구해야겠다고
생각한다.

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
섬기는 종이 되겠다고
말한다. 그는 자신이 더는
아버지의 아들로 대접받을
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.

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?

탕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항하는 우리를 상징한다.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
가서 무엇을 했든,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의
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.

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. 그러나 우리는 뉘우치며
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회개해야 한다. 하나님께서는
우리를 영광으로 옷 입하실 것이며,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
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. "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
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."

누가복음 15:32.

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
용서하고, 그를 받아들여
아들로서 대한다. 그리고 온
가족은 그의 귀환을 축하한다.